



10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10월15일 본회회의실 -



10월 채란분과위원회가 지난 10월15일(화) 오후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소비부진으로 난가에 계속 하락함에 따라 대책강구를 위해 3개월만에 개최된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 15명이 참석해 계란가격의 장·단기전망, 축산관측, 최근 난가형성 및 대책, 수입개방과 채란양계업 전망, 채란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선진지시찰, 기타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가격에 대해 생산량이 많아 단기회복가능성이 없고 장기적으로도 입추량이 많아 난가회복에 애로가 많은 만큼 현상태에서 전국적으로 20%정도 도태 또는 환우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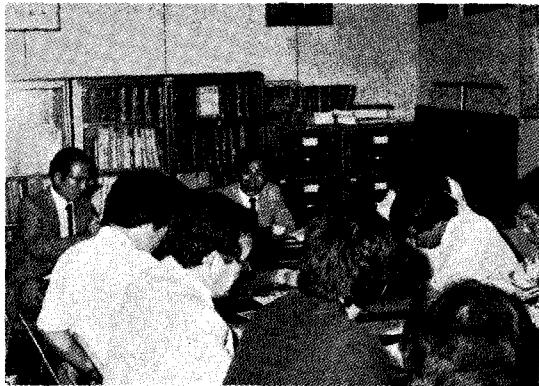
최근 난좌공장의 난좌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미루어 체화물량이 많다고 보아 전채란업자는 대동단결

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로 했으며 선진지시찰은 난가하락으로 참가자 신청이 적을 것으로 우려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

황 인옥전무는 협회업무보고에서 양계 산물 소비홍보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10월28일 본회회의실 -



지난 10월28일 본회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각 지역별 현황에서 육계가격은 세미가 750~850원이고 하이는 750~770원으로 약간 오름세였으나, 계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부지역이 높고 서울경기지역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병아리가격은 연말연시를 대비한 입추가 활발하여 200~280원으로 다소 더 오를 전망이며 병아리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대한양계협회 소식

육계 출하는 정상적이나 소비의 위축으로 인하여 가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예년에 비해 부진한 점과 지난 1개월전부터 군납물량의 비축량이 상당히 있어 11월 중순까지 가격이 회복될 전망이 없으며, 연말연시는 육계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즈음 가격이 하락한 이유로서는 첫째 소비부진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사육방법 개선, 질병 발생 감소로 육계의 출하율이 상승했다는 점 등을 들어 초생추 출하수수가 적다 해서 항상 가격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서 입찰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육계분과회의는 11월 27일(수)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지부 체육대회 개최

— 삼양사 전주공장에서 400여명 참석 —



전북지부(지부장 이 한주)는 지난 10월 28일 삼양사 전주 제1공장 잔디구장에서 회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 축산업계 단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축구, 계주, 줄다리기, 닭싸움, 마라톤 등 5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벌였으며, 전주·완주 본부팀 등 7개 팀이 참가하였다.

● 대회 임원구성

대회장	이 한주
부대회장	김 철한, 박 연수, 최 상기
진행총책임	정 병운
기록	유 앵님

● 경기 성적

우승 : 익산농장팀(팀장 이 현진)
준우승 : 이리, 군산, 옥구팀(팀장 고 석수)
3위 : 금오농장팀(팀장 윤 세창)
4위 : 함열지역팀(팀장 김 정남)
5위 : 전주, 완주본부팀(팀장 홍 용완)
6위 : 김제지역팀(팀장 장 영근)
7위 : 난우회팀(팀장 박 기성)

부산·경남지부 제 8회 체육대회

본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김 성봉)는 제 8회 종합친선 체육대회를 회원 관련 업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김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릴레이 등 경기를 펼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전남지부 사무실이전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안 명수)는 회원 관련 업계의 성원에 힘입어 사무실을 확장, 지난 10월 17일 이전했다.

주소 : 광주시 북구 신안동 256-7
전화 : 54-9010

농촌일손돕기 벼베기 행사

— 안성군 금광면 농촌리에서 —

본회는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8·19일 양일간 안성군 금광면 농촌리 소재 이상진씨의 논 1,500여평에 대해 벼베기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황 인옥전무 등 전 직원이 참석하여 잠시나마 농민의 고된 일손을 도왔다.